

2026 직원·조교 AI활용 경진대회 · AI기획·발표자료

CNU 규정 나침반

질문하면 근거 조문과 출처를 바로 확인하는 규정 안내 시스템
— 반복되는 문의와 감사 지적을 줄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

팀 글로벌AI융합교육 — 정유선 · 이효성 · 임가람 (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AI융합교육센터)

문제는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업무 중 찾기 어렵다는 것.

719_건

규정집 링크 전수 실측.

이 중 현행 규정 105개·조문 1,687개를 수집·정리

1,687_{조문}

조문 확인은 개별 HWP 열람 방식.

업무 중 여러 파일을 열어 눈으로 찾아야 함

반복

규정을 찾고 당시 조문을 확인하는 과정이
부서마다, 사람마다 되풀이됨

추진 근거와 차별점

감사 뒤에 확인하던 규정을 업무 처리 전에 확인하도록.

"업무 특화 AI 전문가 구축, 입시 챗봇 및 규정 챗봇 운영"

— 전남대학교 발전계획 2026-2029, 과제 11.2.2 (담당: 정보화본부, p.63)

발전계획의 '규정 챗봇 운영' 과제를 실제 질의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고,
기존 챗봇 개념에 **기준일별 판본 조회 · 근거 조문 강제 · MCP 연결**을 더했습니다.

질문하면 관련 조문과 출처 제시. 근거가 없으면 **답변 제한**.

규정: 연구비 인건비 계상 기준

▶ [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제2조]

원문: 인건비 계상 및 집행기준은 ...

출처: jnu.ac.kr/.../AdminRule400.aspx?key=...

규정: 타 기관의 수당 지급 기준

▶ **해당 규정 미확인**

교내 규정에 근거가 없으면 답변을 제한

규정 안내에서 잘못된 답은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이어짐.

답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 설계.

지금 규정만이 아니라 그때의 규정도 확인.

시점: 연구비 인건비 @2015-06-01

 당시 유효 판본 (2017. 5. 1. 개정 전 판본)

유효기간 2014-12-02 ~ 2017-05-01

당시 조문 원문 + 당시 출처 URL

감사에서는 업무 처리 당시 적용되던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.

우선 구축한 연구비·장학 규정(53개 판본)은 기준일별 조회 가능. 첫 판본의 제정일 이상까지 표기해 과신을 방지.

...	2014.12	★ 질의 시점	2017.5	현행
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--	----

연구비 중앙관리지침 개정 계열 23판

유효기간으로 판본 자동 판정

감사 지적 유형 9종, 업무 전에 확인.

"소액 물품을 나눠서 구매해도 되나?"

계약·구매 점검 — 분할 수의계약 우회 여부 등
3문항 + 관련 조문 연결

"외부 특강, 신고해야 하나?"

겸직·이해충돌 점검 — 사전 신고·승인 확인 +
행동강령 조문 연결

"이 출장비 정산, 괜찮나?"

여비·출장 점검 — 중복 수령·증빙 확인 + 여비 규정
연결

감사 지적 사례에서 **공통 점검 항목만 추출**하고 부서명·개인명·사건 정보는 제외. "감사 판단을 대신하지 않음"을 명시 — 업무 처리 전 확인 항목을 제공해 **반복 오류 예방**을 지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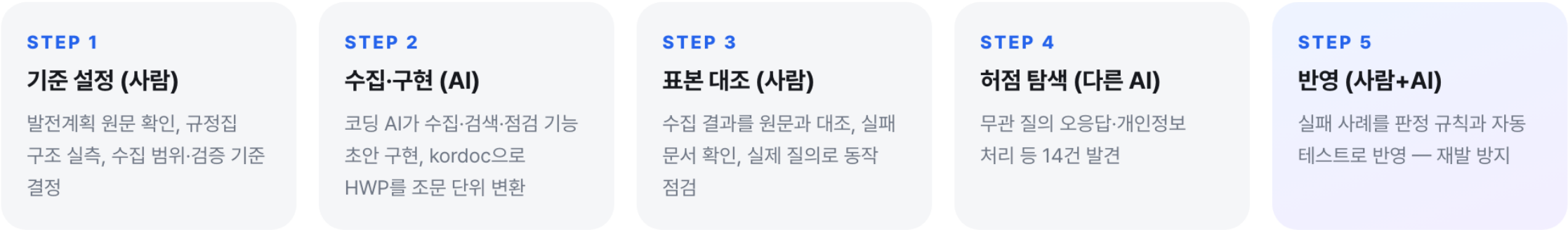
규정 서버는 하나. 쓰던 AI 도구에 연결해서 씬.



사용자를 한 화면에 묶는 챗봇이 아니라, 각자 쓰던 AI 도구가 공통 규정 서버를 조회하는 연결 방식(MCP).

서버의 규정 데이터를 한 번 갱신하면 연결 도구가 같은 최신 데이터를 조회.
공개 규정만 제공하며 사용자 업무 내용은 저장하지 않음.

사람이 기준을 정하고, AI가 만들고, 다른 AI가 허점을 찾음.



도구	맡긴 일	선택 이유
Claude	설계 판단 · 답변 형식 통제 · 검증	긴 규정 문맥 비교와 출력 통제에 적합
코딩 AI (Codex)	수집·기능 구현 · 허점 탐색	반복 구현 위임 + 다른 모델의 교차 검증
kordoc	규정 HWP → 조문 텍스트	한글 행정문서 변환에 특화

프롬프트의 한계를 확인한 뒤 판정 규칙을 코드로 옮김.

① 답변 프롬프트 — 역할·근거·실패 처리

"전남대 규정 안내 역할. 검색된 공식 조문 안의 사실만 사용, 조문 밖 내용 생성 금지. 근거가 없으면 '해당 규정 미확인'으로만 답변." + 출력 형식(조문·출처 순) 지정

② 수집 프롬프트 — 범위·예외 처리

"현행본과 과거 판본을 구분 수집하고 판본별 유효기간 기록. 파싱 실패 문서는 목록으로 보고." * 실패 격리·수치 검증은 프롬프트가 아니라 코드 규칙으로 강제

③ 점검 프롬프트 — 매칭·면책

"업무 상황을 감사 지적 9유형과 대조해 점검 항목과 관련 조문 연결, '감사 판단을 대신하지 않음' 문구 필수"

1차 — 프롬프트 지시만으로 운영

지시문은 그럴듯했으나, 교차 검증에서 **무관한 질의에도 조문이 나오는 사례**가 확인됨

2차 — 판정 기준을 코드로 이관

관련성 판정을 검색 규칙에 내장하고, 같은 오류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**회귀 테스트**를 추가

자동 점검 36개 사례 — 정상 질의 · 무관 질의 · 과거 시점 · 개인정보 처리 · 출처 검증 등

맷음 — 도입 계획

여러 HWP 열람을 한 번의 질의로.

규정 105개 · 조문 1,687개 · 개정 판본 53개 — 현재 시연 가능한 상태.

공개 규정부터 시범 운영하고, 담당 부서 검증을 거쳐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.

규정 검색부터 근거 확인까지, 질문 주시면 직접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